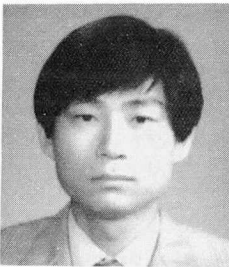


번식돈관리 소홀히 취급하는 농장 의외로 많아



신 경 훈

(〈주〉삼양사 양돈PM)

최근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만연된 질병과 무분별한 모돈 감축으로 인한 사육두수의 절대량 감소로 인한 것이며, 돼지 사육두수가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돼지고기 수입이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호황이 계속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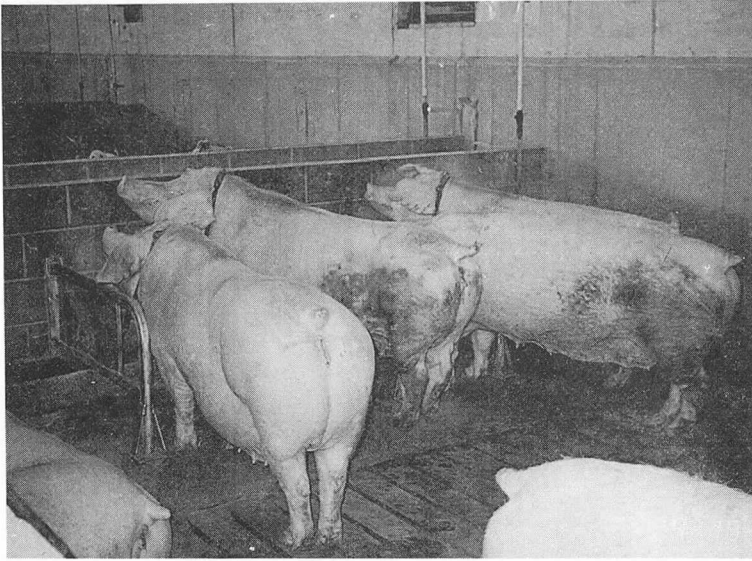
이러한 불투명한 양돈업의 앞날에 대비하여 양돈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두당 생산비의 절감 뿐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양돈업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인력난, 축산폐수, 축산정책부재 등)을 놔두고 주로 사양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돈은 크게 번식돈, 자돈 그리고 육성비육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번식돈과 자돈의 사양관리기술이 매우 어렵고, 양돈장의 문제도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필자가 중소규모(약 500두 전후)의 양돈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번식돈의 관리가 의외로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비육돈의 생산비와 산육능력에 주고 있는 악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모돈이 60두와 70두인 두 농장이 있다고 하자. 이때 두 농장의 모돈 1두당 비육돈 출하두수를 각각 20두와 17두라고 하면, 모돈 60두인 농장은 연간 1,200두의 비육돈을 출하하고, 모돈 70두인 농장은 1,190두의 비육돈을 출하한다. 그러면 두 농장의 수익성은 비육돈 출하두수에서 모돈 60두인 농장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모돈 10두 차이에 의해 추가되는 비용, 즉 초기투자비용 약 2천만원 그리고 연간 모돈 사료비용 250만원, 기타 인건비, 시설비,약품비, 시간, 노동력 등 많은 원가절감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모두 사양



모든 산자수가 많아 분만과 수유로 인한 체력손실이 많은 반면, 체지방이 얇아 오히려 체력 축적에는 불리한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사용은 2산때의 산자수 저하, 그리고 3~4산 때의 모돈의 도태로 이어져 보이지 않는 양돈장의 손실을 주고 있다.

가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우리나라 모돈 두당 비육돈 출하두수가 17두인 반면, 우수농가의 비육돈 출하두수는 선진국 수준인 23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농장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면, 후보모돈과 임신돈의 사양관리 실패로 인한 산자수의 감소와 모돈 회전율의 불량 그리고 자돈의 사양관리 미숙으로 인한 자돈 육성율의 저하로 압축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주로 번식모돈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겠다.

1. 후보돈의 사양관리







최근 수년간 외국에서 좋은 종자가 많이 수입되므로써 우리나라의 어미돼지 능력은 급속히 향상되어 대부분의 모돈이 산자수 10두 이상, 그리

고 등지방두께가 20mm 이하인 것이다. 이렇게 고도로 개량된 모돈은 과거의 모돈과 사양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후보돈을 차후 번식에 7~8산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성기간중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초종부시기가 너무 빠르고, 체중도 적으며, 번식을 위한 충분한 체력(지방)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식에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개량된 모돈은 산자수가 많아 분만과 수유로 인한 체력 손실이 많은 반면, 체지방이 얇아 오히려 체력 축적에는 불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무시한 무리한 사용은 2산때의 산자수 저하, 그리고 3~4산 때의 모돈의 도태로 이어지고, 이것이 양돈장의 보이지 않는 손실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모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초종부시기는 8개월령(240일령) 이상, 체중 130kg 이상에서 결정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골격의 발달이 충분히 되고, 체지방의 절대량이 많아서 산자수

〈표1〉 보디·콘디션 점수

점 수	후구의 모양	모 돈 의 상 태	마지막늑골
0 매 우 야 워		-모돈은 소모된 상태 -등뼈, 늑골, 골반이 튀어나오고, 만지면 울퉁불퉁	10m/m 이하
1 야 워		-등뼈, 늑골, 골반이 손의 평평한 부분으로 누르면 만져짐 -등뼈의 양측은 움푹 패여 있음 -꼬리부분이 패여 있음	10-14m/m
2 보 통		2.0 -등뼈, 늑골은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 만져짐 -좌골은 눈으로 보이거나, 1-2산 모돈은 쉽게 만져짐	15m/m
		2.5 -약간 여윈 느낌은 들지만 외관은 좋다. -등뼈와 좌골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만져짐	16-17m/m
3 양 호		3.0 -손으로 눌러도 3초이내에 등뼈, 늑골, 좌골이 만져지지 않음 -몸통은 앞다리 및 목부분 약간 두텁고, 후구는 둥글 -꼬리부분은 패여있지 않고 등은 평평함	18m/m
		3.5 -젊은 모돈은 좌골을 만지는 것이 곤란 -나이를 먹은 모돈은 만질 수 있음	19-20m/m
4 비 대		-손으로 강하게 눌러도 등뼈, 늑골, 좌골 만져지지 않음 -앞다리 몸 이후의 몸통은 두껍다	21m/m
5 매 우 비 대		-눈으로 보기만해도 지방축적이 선명	25m/m 이상

가 늘어난다. 또 포유기간중에 젖의 분비가 잘 되고 이때 체력소모도 적어서 자돈의 성장도 양호해질 뿐만 아니라, 재발정이 빨리 와서 모돈의 공태기간이 짧아지고 수명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돈장에서는 6~7개월령 100~110kg때 초종부를 시키므로써, 모돈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번식장애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2. 임신초기 사양관리

양돈장에서 산자수가 적은 원인은 주로 임신초기(종부~4주)의 사양관리가 잘못됨에서 기인한다. 이 시기는 수정란이 세포분열하고 자궁에 착

상하여 안정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때의 착상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부전 강정사양과 임신초기의 사료양 제한으로 생존 수정란 수를 많게 하고, 초기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착상된 수정란이 최대의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가지 요인이 관여하므로 추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은 생략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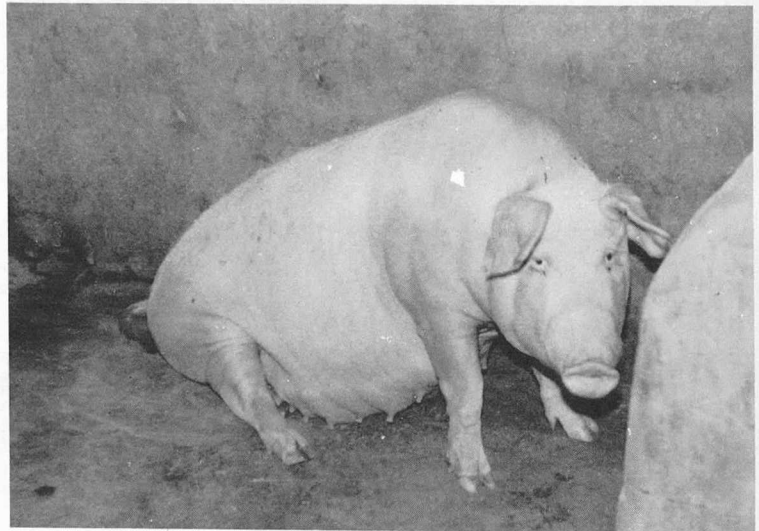
3. 수유기간중의 지나친 체력 손실

초산이나 2산때의 젊은 모돈은 자신의 골격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이므로 젖의 분비로 인하여 빼앗기는 체력 손실의 양이 매우 크다. 그러

“

임신기간중 적절한 체형유지 실패 또는 수유기간중 지나친 체력 손실로 모돈의 체중감소가 클 때는 재발정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체력 손실이 너무 커서 도태되기도 하므로 수유기간중 보다·콘디션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



나 이것은 수유중에 섭취하는 사료로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모돈의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체력(체지방) 손실이 너무 크면 모돈은 자신의 체력 회복을 통해 재발정을 지연시키고, 다음 산차의 번식성적이 저조하게 되며, 이것이 계속되면 오래 가지 못해 도태되고 만다. 이것은 농장의 전체 모돈중 초산이나 2산의 모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2산이하 모돈의 적정비율은 35% 내외).

이것은 모돈의 개체관리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데, 모돈개체관리법을 소개하면 임신단계별로 적정 체형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체별로 사료량을 가감하여 모돈들이 적절한 체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을 통하여 사료량을 절약하고, 번식성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모돈 수명도 길어지므로 양돈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모돈개체관리를 위한 보다·콘디션 점수는 <표1>과 같고, 임신단계별 적정상태는 임신중기 3.0, 분만시 3.5, 이유시 2.5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모돈이 과비되거나 야위

지 않도록 사료급여량을 개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신중기에 여윈 모돈은 임신말기에는 태아의 급속한 성장으로 적정 체형을 만들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임신중기에 적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비되면 난산의 위험과 각종 번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기간중 적절한 체형유지 실패 또는 수유기간중 지나친 체력 손실로 모돈의 체중 감소가 클 때는 재발정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체력 손실이 너무 커서 도태되기도 하므로 수유기간중 보다·콘디션을 잘 살펴보아 체중이 큰 자돈을 미리 이유시키거나 양자, 허약돈 도태를 통하여 모돈을 구하는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돈은 양돈장에서 돈을 까먹는 것이 아니고 돈(자돈)을 만들어 내는 것임을 고려할 때, 모돈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모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